

“깨달음 향한 정신집중 수행”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禪불교 ①

6세기 달마대사 종파 구축 비논리적 화두 공부방편 이용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로 퍼졌다. 이 전도는 주로 인도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건너간 승려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보리달마일 것이다. 그는 6세기 초엽 중국에 입국하여 선종(禪宗)의 초조가 되었다.

그가 양무제(梁武帝) 앞에서 세속적 공덕을 쌓는 일보다 공적(空寂)한 지혜를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하다가 문득 그 답을 깨치게 되었을 때 나 익살맞은 농담에 순간적으로 미소지을 때 느끼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선종은 7세기에 등장한 천재 혜능(638~713)에 의해 크게 발전한다. 그 뒤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극동불교의 대표적인 종파로 자리잡는다. 선(禪)은 중국어로는 찬(Chan), 일본어로는 쯤(Zen)으로 발음된다.

선불교는 순수한 정신집중을 통해



◇ 보리달마를 최초로 중국에서 융성한 선불교는 절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며 폭넓게 전해졌다. 사진은 혜가가 달마에게 팔도를 팔려 버치며 법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그린 벽화.

7세기 중국서 선종 융성... 한국·일본에 전파 경전문구보다 '조사의 이심전심' 중시

교리(聖諦第一義)를 묻는 황제의 질문에 달마는 성스러운 것이 없는 텅빈(雖然無物)이라고 대답하고 떠나버렸다. 그는 황제의 실력으로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송산 소림사(嵩山少林寺)에 들어가 번역참선(禪堂參禪)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고자 원팔을 끊어 바친 혜가(慧可)에 의해 달마의 법(法)은 이어진다. 수년에 걸친 면벽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던 달마는 그 충격한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다.

“제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달마가 대답했다.

“어디 지네 마음이란 것을 내놓아 보게. 그러면 내 그것을 진정시켜 줄세.”

한동안 침묵이 흐른 끝에 혜가는 스승에게 “마음을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달마가 말했다.

“좋아, 자네 마음은 이제 평안을 찾게 되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가는 갑자기 깨달게 되었다. 이것이 전등(傳燈)의 시작이다. 이후 선가(禪家)에서는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수많은 일화들이 전해 내려온다.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고민

언어와 감각의 실재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사물과 자신 나아가 붓다의 존재마저 의심해보는 수련이 요구된다. 많은 선원(禪院)에선 불경(佛經)의 권위가 그리 높지 않다. 선체형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며, 개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매우 친밀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경전의 문구보다 조사(祖師)의 직접적인 이심전심 가르침이 더 중시되었다. 서양에도 “문자는 정신을 가두지만, 성령은 정신을 해방시킨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의 독특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화두(話頭 혹은 公案)를 붙잡는 일이다. 화두는 대개 논리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물음으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화두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어느날 제자가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동산수초선사(洞山守初禪師)는 “마삼근(摩三斤)”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에 무슨 특별한 상징적인 뜻이 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스님이 조주(趙州)에게 와서 물었다.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물 앞의 잣나무이니라(庭前栢樹子)”고 말했다. 제자가 단순한 물건을 대상으로 물었다

고 항의하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조주는 다시 한번 “물 앞의 잣나무이니라”고 대답했다.

서양에서 엄격한 수도원 생활규칙을 세운 성 베네딕트(St. Benedict)의 규범과 비교할만한 《백장정규(百丈清規)》의 저자인 백장의 문하에는 많은 승려가 모여 들었다. 불어난 승려들을 수용할 새로운 절을 짓고, 그 절을 관리할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모두 모이게 했다. 그를 앞에 향아리를 하나 놓고, “향아리”란 말을 쓰지 않고 이게 된지 말해 보아라”고 했다. 수제자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진흙조각도 아닙니다”고 대답했다. 이때 주방에서 일하던 젊은 스님이 지나가다 그 말을 듣고 향아리에다가 발로 밟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듯이 다시 주방으로 가버렸다. 백장은 그 젊은 스남에게 새로 지은 시원을 말했다.

“토요”라는 일본소년의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는 열두살이 되던 해 모쿠라이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선사는 더 크면 오너라 하고 돌려보냈다. 소년은 다음날 다시 와서 풀라했다. 할 수없이 스승은 문제를 내주었다. “넌 두 손으로 치는 손뼉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한 손으로 치는 손뼉소리를 내게 들려줄 수 있겠나?” 자기 방

으로 돌아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소년의 귀에 이웃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아! 알았다” 하고 소년은 외쳤다. 다음날 소년은 스승을 찾아가 그 노래소리를 흥내내었다. “아니다. 한손의 손뼉소리는 그게 아니다” 하고 스승이 말했다. 소년은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어디선가 풀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그래, 이거야!”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다음날 소년은 스승 앞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흥내내었다. “그건 물방울 소리인 것 같은데, 한 손 손뼉소리가 아니야. 더 찾아 보거라” 하고 스승이 말했다.

그 뒤, 바람소리,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등등 많은 소리를 내었지만 모두 퇴짜맞았다. 일년이 넘었지만 소년은 여전히 한 손이 내는 손뼉소리를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스승에게 찾아가 “아무리 소리를 찾아 다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차라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스승이 말했다.

편역: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이동운 <희상>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세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 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귀절은 우리집의 가훈이다. 유능 정직 상냥 은화 겸손, 이런 덕목들은 평안한 마음의 경지에서 나온다는 것이지만 나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그 덕목들을 실천하는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이 구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가훈 속에 내포된 덕목들을 늘 생각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천명(知天命)이라는 40대. 그 막중한 책임과 일 그리고 병에 시달리는 곤혹의 나이에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이치다. 젊은 시절부터 가져온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도 이 40대의 귀한 귀재일 것이다.

나는 가끔 경봉스님을 생각한다. 험기 방자하던 나의 대학시절 경봉스님은 젊은

선 실천 ‘이타행’ 등을 강조했다. 그중 특별히 강조한 것이 하루 한가지씩 선한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업을 짓고 남을 도와 주는 아름다운 행동을 외면하는 삶은 거칠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소신은 내 긴 군생활과도 함께 했었다.

군생활(군외관)을 시작하면서 나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불교의 군중업무에 무척 놀랐다. 여러 전투부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군병원도 포교의 사각지대이긴 마찬가지였다. 군병원이라는 환경은 특수 속의 특수다. 군생활을 하다가 몸을 다친 사병이나 장교들의 마음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서글프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환경이 초라하다고 행동도

‘신행일치’ ‘1일1선 실천’ 항상 다짐 군외관시절 봉급 쪼개 군병원포교 동참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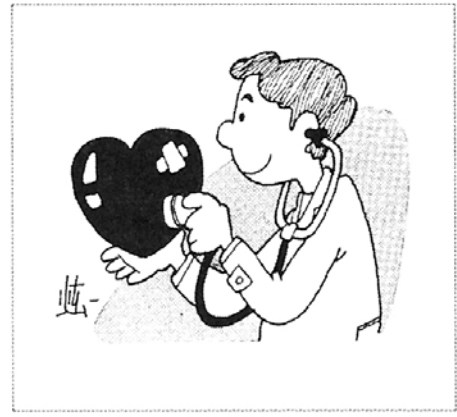
나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고 기쁜 가르침이었다.

영축산 봉우리에 허물게 눈이 덮힌 어느날 경봉스님을 찾아 갔었는데 빗마루에 나오셔서 빗바라기를 하시는 스님의 모습은 말로 표현 못할 건강함에 황홀하여 있었다.

나는 스님의 뒤로 형성된 후광을 본 것 같았다. 그 말이 끊어진 시간의 우연한 체험. 도를 이룬다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활인으로 불법을 올바로 지키고 닦는 길은 어떤 것인가. 아무튼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여러차례 경봉스님의 방에 들어가 삼배 올리고 법담을 들었지만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우연히 본 노스님의 경건스런 위엄은 아직까지 생생히 떠오른다.

대학을 다닐때 나는 1년간 학생법회를 지도한 적이 있다. 법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대개 <전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잘 외우고 절을 많이 하고 법회 교박교박 잘 나오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신앙의 곁길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 기회 있을 때마다 ‘신행일치’ ‘1일1



초라할 수는 없었다. 10여 명의 위관급 장교들과 마음을 모아 법회를 꾸렸다. 그나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매우 기쁜 법회였다. 봉급을 쪼개서 책과 목탁 등을 마련하고 법회를 시작하니 점점 동참자도 늘었다. 매주

여는 법회에는 환자와 기간병은 물론 불교에 관심 있는 장교들도 많이 참석했다.

당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스님이 단 기병으로 입대해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 스님이 입대할 때는 절을 찾아 다니며 스님들께 어렵게 청해 얻은 글씨와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수익을 위한 전시회는 아니고 포교를 위한, 인연을 지어 주는 전시회였는데 무척 성과가 좋았다. 큰 스님들의 서화를 그냥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참다운 불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일이란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그 병원에서 전방으로 전속되어 간 뒤에 그 전시회 효험(?)이 굉장하다는 뒷소식을 들었다.

그 후로도 여러 임지를 다니며 나름대로 법담에 다녔지만 아직 군포교는 못다 쌓은 탐인것 같아 안타깝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업 - (주)두풍산업

스님! 장엄사 (주)두풍산업에 맡겨보십시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불교문화의 창달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최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현세에 한번 밖에 할 수 없는 불사!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불사의 어려움, 나머지 받은 저희 (주)두풍이 책임지겠습니다.

영업안내

불교건축	조각·미술	불상
사찰	단청	전불조성
고건축	계급	석불
콘크리트조	탁자	대불
단집	탱화	목불
내장...	영단	동불
	주련	특수불
	법상	
	법관	
	연...	

(주) 두풍은 처음으로 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사의 경제적 부담의 반을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제 시멘트 공법으로 범당과 묘사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할수없는 것이 불교문화의 건축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신개발 공법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길수 있는 불사로 만들겠습니다.

- ◇ 서가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 포작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 익공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 기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株式會社

斗豊産業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두풍B/D) ☎ (02)439-3900 FAX 439-3933